

# 1. LifeAtlas-AI(nomad edition)\_ 기획서

[기획서 제목] AI 기반 디지털 노마드 비자 매칭 및 신청 지원 플랫폼 구축

[부제목] 개인 조건 기반 국가 추천과 신청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LifeAtlas AI – Nomad Edition

[작성자] KPMG Future Academy 6기 - (2조) 윤지혜, 이남경, 윤희상

[작성일] 2025.08.13

## 1. 요약 (Executive Summary)

### 가. 배경 및 목적

- 국가별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는 요건이 복잡하고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개인이 직접 조사·비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LifeAtlas AI – Nomad Edition**은 AI를 활용해 사용자의 조건과 선호를 분석, 최적의 국가를 추천하고 신청까지 연결

### 나. 핵심 제안 내용

- 사용자 입력 데이터와 외부 지표를 결합한 AI 점수화 추천
- 상위 3개 국가의 조건·비용·기간·세금 규정을 한눈에 비교
- 최신 정책 변화 자동 수집 및 알림 제공
- 체크리스트·주의사항·신청 링크까지 원스톱 지원

### 다. 기대 효과

#### 1. 정보 수집·비교 소요 시간 80% 절감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기존 방식 (As-Is):</b> 사용자가 직접 여러 국가의 이민국 공식 사이트,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글, 유튜브 영상 등 개별적 탐색 필요</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LifeAtlas-AI 방식 (To-Be):</b> 플랫폼이 이미 모든 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 정제하여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li></ul> |
|--|--|

- 국가별 정보 탐색: 최소 5~10개 국가의 공식 사이트 방문 및 정보 확인 (약 2~3시간)
- 핵심 조건 추출: 각기 다른 형식의 정보(소득, 필요 서류, 세금 등)를 수작업으로 정리 및 요약 (약 1시간)
- 정보 교차 검증: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정보일 가능성이 있어, 여러 출처를 비교하며 최신 정보 검증 (약 1~2시간)
- **총 예상 소요 시간: 평균 4~6시간**
- 조건 입력 및 AI 추천: 개인의 조건 입력 후 AI가 최적 국가를 추천하는 데 걸리는 시간 (약 10~15분)
- 결과 비교 및 확인: 상위 3개 추천 국가의 표준화된 비교표를 통해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최종 결정 (약 30~45분)
- **총 예상 소요 시간: 평균 1시간 이내**

## 2. 정보 오류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반려 위험 감소

- AI 매칭을 통해 사용자의 핵심 자격 요건(소득, 직업 등)이 비자 기준에 미달하여 발생하는 '1차 서류 심사' 반려율을 현저히 감소 가능
- 최신 정책 변경 자동 알림과 원스톱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잘못된 정보나 서류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절차상 반려 위험 최소화
- 주요 조건(세금, 비용, 기간)의 정제된 비교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비자 신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오류'를 방지

## 3. 초기 유료 전환율 5% 목표 및 MRR 성장 기반 확보

- **핵심 가치 제공:** 비자 반려 시 발생하는 수십~수백만 원의 매몰 비용과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유료 서비스(예: 월 1~2만 원)**는 매우 합리적인 투자로 인식 가능
- **업계 벤치마크:** 일반적으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B2C 서비스의 초기 유료 전환율은 **평균 1~5%** 사이에서 형성. 특히 특정 분야의 문제를 깊이 있게 해결하는 '니치 버티컬(Niche Vertical)' 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인 서비스보다 전환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 존재. 디지털 노마드 비자라는 명확한 타겟 시장을 고려할 때 **5%**는 도전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 설정 가능
- **MRR 성장 기반:** 초기 유료 전환율 5% 달성은 '제품-시장 적합성(Product-Market Fit)'을 검증하는 중요한 지표. 소수의 사용자라도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바탕으로 LTV(고객 생애 가치)와 CAC(고객 획득 비용)를 분석하여 마케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 이는 안정적인 MRR(월간 반복 매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

## 라. 투입 자원

- 개발 인력: 프론트 1, 백엔드 1, 데이터/AI 1, 디자이너 1
- 기간: MVP 개발 3개월
- 예산: 약 5천만 원(개발·데이터·마케팅 포함)

## 마. 시장 규모 (TAM/SAM/SOM)

- **TAM**: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 및 원격 근무자 약 1억 명 이상, 연간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비자·정착 서비스 잠재 시장
  - **SAM**: 초기 대상 20개 주요 국가 기준, 약 20억 달러 규모
  - **SOM**: 1~2% 점유율을 목표로 하며, **연간 약 2,000만~4,000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
- 

# 2. 본문

## 1. 배경 및 문제 정의

- **현재 상황 분석**: 비자 정보가 국가별·출처별로 분산, 최신성·정확성 확보 어려움
- **문제점**: 조건별 비교 불편,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신청 실패, 종합 의사결정 어려움
- **시장 기회**: 디지털 노마드 인구 증가, 비자 제도 확산, 원격근무 일반화

## 2. 시장 규모 (TAM / SAM / SOM)

- **TAM**: 약 1억 명 전세계 디지털 노마드 + 원격 근무자 → 연간 100억 달러 규모
- **SAM**: 초기 주요 20개 국가 중심 → 연간 약 20억 달러 규모
- **SOM**: 1~2% 점유 목표 → **연간 약 2,000만~4,000만 달러**의 매출 예상

## 3. 목표 및 성공 기준

- **정량적 목표**: MVP 출시 6개월 내 가입자 5,000명, 유료 전환율 5% 달성
- **정성적 목표**: 신뢰성 있는 비자 추천·신청 지원 서비스로 인지도 확보
- **KPI**: 추천 정확도, 데이터 최신성 유지율, 정책 알림 클릭률

## 4. 해결 방안

- **핵심 아이디어**: 개인화 점수화 알고리즘 + 실시간 정책 데이터 자동화
- **주요 기능**: AI 추천, 비교표 시각화, 추천 사유 자동 생성, 정책 알림
- **차별화 포인트**: 40/30/20/10 가중치 기반 점수화, 정책 변경 자동 알림, B2B API 제공

## 5. 실행 계획

- **단계별 전략:**

1. 6개 인기국가 데이터 확보 및 AI 추천 엔진 개발
2. 정책 변경 자동 수집·알림 모듈 구축
3. B2B API 및 국가 확장

- **일정 및 마일스톤:** 1개월 데이터/AI, 1개월 프론트·백, 1개월 통합테스트·런칭

- **소요 자원:** Streamlit, FastAPI, Python, PostgreSQL, Firebase, Chart.js, D3.js

## 6. 리스크 관리

- **정책 변경 속도:** 크롤링 + RSS 모니터링 병행
- **데이터 신뢰도:** 수동 검증 프로세스
- **확장성:** AI Agent 모듈화로 국가·언어 확장 용이

## 7. 기대 효과

- **정량적:** 정보 탐색 시간 절감(평균 5시간 → 1시간), 신청 반려율 감소, 유료 구독 전환율 5% 달성
- **정성적:** 신뢰도·전문성 강화, 사용자 편의성 향상, 디지털 노마드 커뮤니티 내 인지도 상승
- **중장기:** 글로벌 시장 확장, 여행사·비자 컨설팅과의 B2B 제휴 확대

---

(( 참고 ))

- **TAM의 추정 근거:**

-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 다양한 글로벌 비자 프로그램 확대
- 비자 관련 정보 탐색, 에이전시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비용 등을 포함한 넓은 개념의 시장 규모로 추정

- **SAM의 추정 근거:**

- 초기 대응 대상으로 설정한 상위 20개 국가의 비자 프로그램 및 디지털 노마드 비자 수요 집중
- 초기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규모를 의미

- **SOM의 추정 근거:**

- 경쟁, 진입장벽, 초기 브랜드 인지도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점유율 설정 (1-2%)
- 해당 시장 내 틈새 공략을 통해 당해 연도 매출을 예측 가능하게 산정

[출처] : MBO Partners, Forbes, global intelligence unit